

## 우리나라 자생수종 6

### 모감주나무



전 승 훈

경원대학교 도시조경학부 교수

- ▶ 과명 : 무환자나무(Sapindaceae)
- ▶ 학명 : *Koelreuteria paniculata* Laxm.
- ▶ 영명 : Golden Rain Tree
- ▶ 한명 : 欒樹, 菩提樹
- ▶ 기타 : 염주나무

#### □ 분포 및 생태

##### • 자생적 분포범위(native range)

중국 동북부와 일본 혼슈 및 한국에 주로 분포하는 동아시아종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해안가를 중심으로 전남 완도와 충남 안면도, 경기 백령도, 경남 등 도서지방과 경북 포항부근 등에 작은 집단을 이루며 분포하는 희귀식물이다. 과거에는 자생지가 잘 알려지지 않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안면도 모감주나무 군락에 대해 원산지 논란이 일기도 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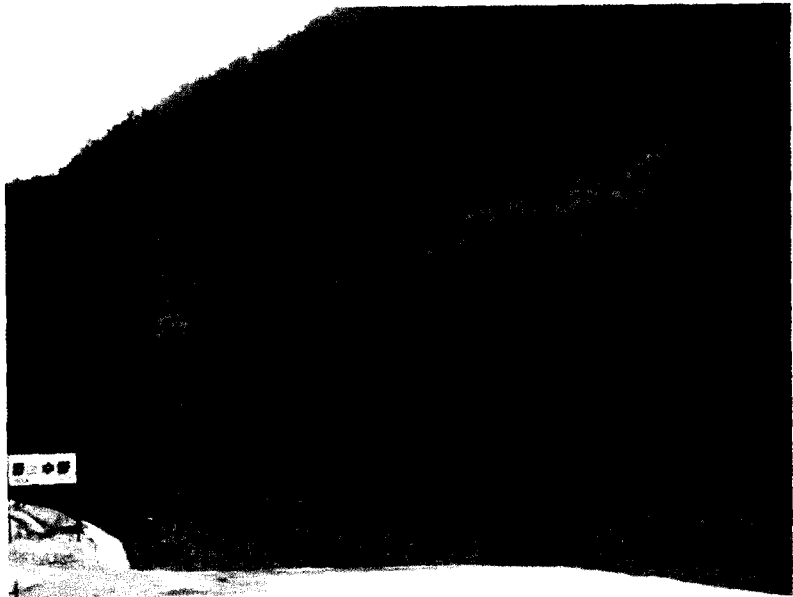
##### • 생육가능범위(useful range)

북반구 온대 중, 남부 수종이나 비교적 내한성도 있기 때문에 황해도와 경기도, 그리고 남부도서의 자생지를 중심으로 전국 각처에서 잘 자란다. 수직적으로는 해발 1,000m이하의 생육범위를 보일 것으로 추정되나 고도가 높을 수록 추위 때

문에 성장상태는 양호하지 못하다.

• 생태(ecological characteristics)

북반구 온대수종으로 해류의 영향으로 비교적 따뜻한 해안환경에의 적응성이 우수하다. 자연상태에서 해류와 새들에 의한 종자 분산기구를 통해 분포영역을 확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극양수 수종으로 햇빛이 풍부하고, 부식질이 풍부한 양토에서 생장이 양호하나 건조환경에의 적응성도 우수하다. 자연상태에서는 잡목림이나 관목림 등 숲가장자리의 개방입분에 주로 자란다.



▲ 자생지의 분포특성

□ 크기와 습성

낙엽교목으로써 다자라면 높이가 약 10-15m, 가슴둘레 약 1m에 달하고, 수간이 곧은 둥근형 또는 원추형의 아름다운 수형을 형성한다. 하지만 생장이 매우 느리기 때문에 흔히 아교목의 성상을 자주 볼 수 있다. 잎은 7-15개의 소엽으로 이루어진 우상복엽으로써 불규칙한 톱니가 발달하고 더위에 지친 듯 주름진 모양을 한다. 꽃은 작으나 큰 원추화서를 형성하여 나무전체를 화려하게 수 놓는다.



▲ 공원 경계식재(중국 북경시)



▲ 잎의 특성(우상복엽으로 주름진 듯한 모양)

### □ 입지적합성

극양수로서 내공해성과 내건성이 비교적 양호하기 때문에 개방된 도시환경에서 적합도가 매우 높다. 배수가 잘되는 양토 또는 사질 양토에 잘 자라나 내침수성은 약한 편이기 때문에 물가주변에서의 생장은 양호하지 못하다. 특히, 내염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해안지방의 입지환경에 적합하다. 내한성은 비교적 강한 편이나 중부이북의 내륙지방 등의 혹한기에는 동해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 □ 계절적 효과

모감주나무는 무엇보다도 여름철의 꽃이 아름다운 식물이다. 꽃이 귀한 여름철에서 찬란한 황금색 꽃을 피우는 모감주나무는 무더운 여름날의 신선한 긴장감으로 다가온다. 장마철이 지나 피어나는 순노랑의 화관은 장마비가 마치 황금비로 환생한 듯 색채미의 절정을 이룬다. golden rain tree라는

영어이름이 우연이 아닌 듯 싶다. 모감주나무는 꽃이 지고나면 곧바로 연녹색의 아름다운 풍선모양의 열매주머니가 만들어져 빼어난 시각적 영상을 제공하며, 가을철에는 노



▲ 열매의 특성(연록색의 풍선모양)

랠게 물드는 단풍잎으로 매력을 더한다.

### □ 식재기능 및 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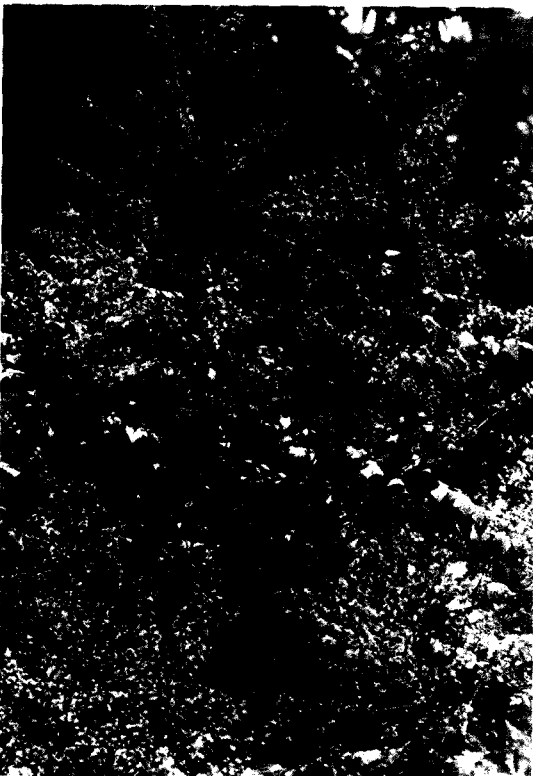
곧게 자라는 원줄기와 단정한 수형, 그리고 이국적인 잎의 배열외에도 장식적인 침화로 도심공원의 표본목이나 경계식재, 녹음수로 적합하다. 그러나 가로수로서의 적합성은 지하고가 비교적 높지 않고 내풍성이 약하기 때문에 식재공간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한다. 한편 생장이 비교적 느리기 때문에 단식 또는 군식을 통해 작은 공간이나 도로중앙분리대의 표본목으로도 적극 추천할 만하며, 도로변 완충녹지와 도심하천의 제방사면 등의 녹화 및 표본식재효과도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 물론 해안환경의 경관형성 및 녹화



소재로서 매우 우수한 특성을 보여준다.

### □ 유지관리

별다른 유지관리노력이 요구되지 않는 수종이나 다소 약한 목질특성으로 바람피해와 중부내륙지방의 혹한기 동해피해가 예상될 수 있다. 따라서, 때 늦은 전지전정이나 과다 시비 등으로 추위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지 않도록 해야한다. 🌱



▲ 꽃의 특성(원추화서로 황금색)

